

우리가 꿈꾸는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수 있는 단 한사람!

책자형 선거공보

용인시의회의원선거 (용인시카선거구)

개혁신당



시민이 시장입니다!! 내마음 같은 시의원!

제가 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무능하면
시민이 불행합니다.

용인의 미래 가치와 주민의 소중한 권리,
우리와 아이들의 행복을 온몸으로
지키겠습니다.



무궁화표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보정동, 상현2동

4우태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용인시의회의원선거 (용인시 카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4	개혁신당	우태주	남	1948.03.08. (78세)	국회 입법정책 연구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전)국회의장 민원비서관(2급) (전)경기도의회 의원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8,908,781	6,638,781	2,270,000	-	장남: 고지거부 차남: 고지거부 손녀1: 없음 손자1: 없음 손자2: 없음 손자3: 없음	육군일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 장남: 5급 전시근로역 (신장 체중) - 차남: 육군병장 (만기전역)

3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927,682	12,136 (26.03.27.)	0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00,000원 (2025. 09. 05.)
후보자	49,598	9,608 (26.03.27.)	0	
배우자	16,798	2,528 (26.03.25.)	0	
직계존속	-	-	-	
직계비속	861,286	0	0	

4 소명서

-

시의원은 정당만 보지말고 주민을 위해 누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죽전 1, 2, 3동, 보정동, 상현2동 주민여러분, 그리고 군복무, 직장등으로 집을 떠나계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새로운 기운이 충만하기를 소망 합니다.

지역 발전 굵이굵이에 경기도의원이었던 저의 땀이 젖어 있음을 제 생애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로부터 뚝심 있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언론사(2006.3.30 주간리더 자체ARS)의 여론 조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시장후보 적합도와 예상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지만 패권정당의 타락 공천 추태로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과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지역 사랑의 열정을 불태워 왔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시민 행복은 기초 지방단체인 용인시가 좌우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계획했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시의원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에는 정당에 의미를 두어서도, 공천으로 국민을 속여도 안됩니다. 위정자들의 무능과 방관으로 방치된 도시에서 만족한 행정 서비스와 소중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 투구해야할 많은 지역의원들은 공천권자의 “갑 질”에 시달리며 눈치만보고 정작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 합니다. 결국 시민이 불행해 집니다. 이제 저의 정치적인 모든 욕심 버리고 오직 지역발전만을 위해 더 낮고 더 성실한 자세로 오늘의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큰 일꾼의 눈에는 일이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부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지역과 이웃을 위해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큰일을 꼭 해내겠습니다.

우 태 주 올림

우태주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살기좋은 죽전, 보정, 상현동을 만들겠습니다

- 1 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민끼리 거래, 채용, 발주, 소상공인 지원하겠습니다
- 2 부족한 노인복지, 어린이보육시설을 인근 시설활용으로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 3 전국 최고의 교육, 복지, 청소년,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4 시정을 간소화하고 공무원과 시의원의 업무상 출장외의 외유는 없애겠습니다.
- 5 예산 절감으로 자동차세등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고 주요시정에 주민투표하겠습니다.
- 6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그룹 문화,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7 공무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급 활성화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

- 용인-서울 고속도로 용인시민 통행료면제 전철요금인하조정
- 동천언남선(신분당선-GTX연계) 조기착공 및 전철노선확대
- SRT 구성역 정차
- 용인성남고속도로 죽전(대지교개)진입로 신설
- 경부고속도로 동천,죽전정차장에 일반고속버스 승하차 허용

복지, 고용 분야

- 영, 유아 보육시설 확충.
-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 삼성전자 등 인근 기업체에 주민의무고용할당제 실시
- 노인과 주부를 위한 반나절 일자리 창출
-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의 체계화
- 다문화가정의 복지향상

교육, 문화 분야

- 하천에 보를 만들어 어린이를 위한 풀장과 썰매장 개설
- 학교 운동장 주민체육시설, 야간 주차장으로 무료개방
- 인근 교회, 학교, 아파트 노인정에 문화공간 확보하고 수지여성회관, 노인복지관, 각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프로그램 보급 공동운영, 파크골프장 신설

주거, 환경 분야

-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간소화
- 마을길 정비
- 난개발 방지로 녹지 보전
- 공원 등 공공기관에 담장 및 철 구조물 철거

주민소통

- 월 1회 의정보고 개최
- 동별 주민자치회 결성
- 24시간 민원전화 운영



우리와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 우태주에게 힘모아 주십시오!

1. 용인 광역시, 자치구 입법 추진,
2. 플랫폼시티건설에 주민 혜택 극대화,
3. 용서고속도로 용인시민 통행료 면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① 국토부가 민자회사의 비싼 이자를 방관하고 있음.

2015년 10월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대출 3,300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7%에서 4%로 조정 전용 했다면 저금리시행 직후 통행료 인하하지 않은 점. 7%와 4%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이유.

② 통행량 예측 실수로 예상이상으로 통행료 수익이 폭증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음.

장수 실적 초과로 채무 조기상환을 예상 하고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방치하고 있음.

③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에 대한 관리 부실로 도로 유지 보수비와 운영비의 불투명.

【정보공개 내용】

국토부 정보공개 청구 회신 내용

■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1. 정부지원금 세부 현황
⇒ 건설보조금 4,181억원
2. 건설공사중 보상비 세부 현황
⇒ 편입 토지 등 보상비 5,527억원
3. 물가변동비 및 건설자금 이자 세부 현황
⇒ 물가변동비 1,163억원, 건설이자 422억원

경기도 정보공개 청구 회신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업비 분담 현황
 - 판 교 지 구 : 4,400억원
 - 광 교 지 구 : 3,400억원
 - 흥 덕 지 구 : 1,400억원
 - 동탄1·2지구 : 해당사항 없음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하라”

news 1
KOREA

경기도 용인시 수지 지역 주민들이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수지 발전연합회와 수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등 주민 40여명은 20일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 나들목(IC) 앞에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난 11일에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들은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수지 지역 난개발로 유발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0년 건설하기로 발표했던 영덕-양재간 무료 자동차 전용도로가 모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사업비 1조 4700억 가운데 6031억원을 흥덕 죽전택지지구 등 용인 서부지역 개발 이익금으로 부담했다”며 “수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지 발전연합 우태주 상임대표는 “최근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가 다소 인하됐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누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현안 꿰뚫는 지역일꾼 책임자 자부

굵직한 사업 도의원 재임시 결실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정치 활동
다양한 경험 노하우 준비된 후보
용인의 광역시 지정 위한 밑그림



1. 현재 근황은?

민원 비서관, 도의원출신 사회복지사로서 자원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서 폭 넓게 지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인클래식음악회를 만들어 격주로 클래식 음악영상감상회를 마련하여 문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정치를 시작했나? 주요경력은?

1995년 고향인 대구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넘기고 사업에 열중하고 있던 중 선후배들의 권유로 2002년 용인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직장 경력으로는 동양통신사기자, 한화그룹부장, 민정당대표위원보좌관, 국회의장 민원비서관(2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주식회사 제이엠반도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공동브랜드협동조합이사장,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정치경력에는 대통령특사수행, 중앙당재정위원, 경기도의회의원/정책위의장/한미의원연맹회장. 그외 대한체육회택견협회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지회장등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3. 다수 출마경력에 대한 비판여론도 있는데...

저는 정치권 직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오랫동안의 정치활동에서 국민의 행, 불행을 정치가 좌우하는 현장경험을 하면서 바른 정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수 출마가 문제가 아니고 아부와 부정으로 공천받아 당선되면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실속만 챙기면서 국민 속이는 선수 노릇하는 못된 정치꾼들이 판치는 정치현장을 바로 잡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아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저의 정의로운 진실이 출마의 결심을 계속하게 한 것입니다. 시장후보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가상대결 1위를 만들어 주신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포기할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4. 도의원시절 신분당선을 비롯한 굵직한 지역 이슈를 이끈 바 있다.

그 때의 성과와 소회를 밝힌다면

당시 전국 유례없는 난개발로 교통지옥과 도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수지지역 도의원으로 정말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신분당선연장, 용서고속도로, 수지체육공원, 여성회관, 하수종말처리장, 신분당선연장, 상현동포함한 광고테크노벨리건설과 가로수에 벚꽃나무 심는일 까지 굵직한 사업을 다 해냈습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은 광고까지 1단계 우선 개통을 이끌어낸 쾌거를 지금까지 보람으로 느끼며 의정활동도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다시 한번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해 실력 발휘를 하고 싶습니다.

5. 특례시로 격상된 용인시에 대한 기대와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는 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사무이양을 하겠다는 뜻은 수차례 밝혔지만 핵심 사무 권한을 이양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문제인 정부가 경기도 이재명과 경남 김경수를 위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단독 발의와 동의로 권한자 맘대로 하겠다는 특례시를 만들었습니다. 인구 110만에 도농복합도시의 넓은 면적 용인은 어디로 보나 광역시로 지정 받아야 함에도 문정부는 민주와 지방자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근 부회장으로 특례시 입법의 잘못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윤석열정부에서 용인시를 광역시, 자치구로 지정 받기위한 기초 작업을 이미 착수해서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6. 시민에게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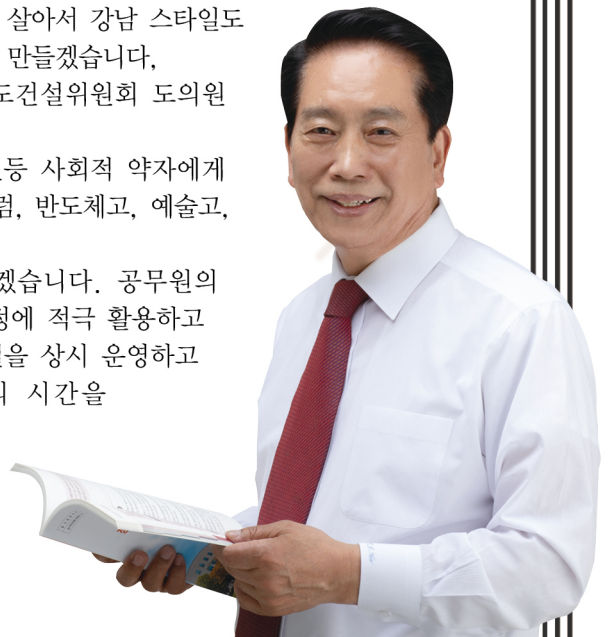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농심을 알고 강남에서 오래 살아서 강남 스타일도 압니다. 우리 용인을 잘사는 농촌, 강남 같은 자랑스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용인 경제의 큰축인 SK그룹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경기도건설위원회 도의원 경험으로 용인플랫폼시티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민등 사회적 약자에게 최고의 복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용인에서 성공한 외고처럼, 반도체고, 예술고, 과학고등을 설립해서 국내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 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그룹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퇴직공무원과 전문성있는 시민을 시정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 민원 해결을 위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민원실을 상시 운영하고 일주일 하루 오전을 정기적으로 시민과 공개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우태주와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선진 지방자치 실현으로 살기 좋은 용인에서 더 큰 행복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신문 2022. 02. 14. 김종경기자와의 인터뷰>



다양한 경험과 경륜으로 용인시정의 철저한 감시·견제와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 제시할

4우태주

대구 달성출신

학 력

- 동국대학교 경상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정치·행정

- 전 국회의원 민원비서관(2급)
- 전 남북국회회담(1988년) 실무위원
- 전 새누리당 중앙당 재정위원
- 전 제6대 경기도의회의원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전 용인시장 예비후보(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 지역신문여론조사(2006.3.30 주간리더 자체ARS),
한나라당 후보적합도, 가상대결 1위
- 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출마(무소속 용인병선거구)
- 현) 국회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

경제분야

- 전) 한국정경연구소 연구원
- 전) 한화그룹 부장, 한국송유관(주) 이사/감사
- 전) 한국광학기협회 상근부회장
-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외이사
- 현) (주)JM반도체 회장
- 현) 중소기업중앙회서울패션공동브랜드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사회·문화·국제활동

- 전) 경기도 외국자본 투자유치단
- 전) 사단법인 세계태권도총연맹 부총재
- 전) 경기도의회 한미의원 연맹회장
- 전) 노태우 대통령 특사 공식수행(칠레, 브라질)
- 전) 국제감사인대회 한국대표
- 전) 대한체육회 택견회 수석부회장, 회장직무대리
- 현) 명원문화재단 이사
- 현) 한·중 우호 교류협의회 회장

지역활동

-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용인지회 고문
- 전) 새마을운동 용인지회 이사, 수지 CBMC 감사
- 전) 용인 신리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전)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 지회장
- 전)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전) 수지여성합창단 창립자문위원 수지배드민턴회 고문
- 전) 수지문학회회원, 용인시체육회 족구협회 고문
- 현) 용인시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총연합회 자문위원
- 현)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지주민통행료폐지추진공동위원장
- 현) 수지발전연합 창립 상임대표

수 상

- 사회발전공헌 대상(글로벌기문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
- 존경받는 한국인 대상(소비자 TIMES)
- 의정대상(시민일보)

저 서

- 망각의 계곡에서(백두산 문학지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
- 행복을 생각하면
- 행복한 미래의 길목

논문집

- 자원봉사활동의 중도 탈락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 행정사, 시인

우태주 | Q